

입말/글말 텍스트의 스타일 연속체 연구*

박 용 한**

〈목 차〉

- | | |
|-----------------------|--------------------|
| I 머리말 | 1 입말/글말 스타일 텍스트의 |
| II. 입말/글말 구분과 관련된 논의 | 이상성(理想性) |
| 1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입말과 글말 | 2 연속체 중앙부의 모습 |
| 2. 입말/글말 텍스트 생산과정에서의 | 1) 채팅(chatting) 대화 |
| 구조적 특성 | 2) 군인 대화 |
| 3.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 | IV. 맺음말 |
| III 입말/글말 텍스트 스타일 연속체 | |

<Abstract>

A Study on Spoken/Written Text Style Continuum

Park, Yong-Han

This paper aims to illustrate that all kinds of text which are composed of spoken and written text form a sort of continuum from a style point of view

All texts are divided into spoken text and written text depending on the type of media. Also, spoken texts are divided into oral-style spoken text and literal-style spoken text depending on the styl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9월 18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

** 해군사관학교 교수

Moreover written texts are divided into oral-style written text and literal-style written text depending on their style. As a result, "Spoken /written text style continuum", which oral style spoken text and literal style written text are situated at both extremes is formed.

This paper provides chatting language and conversation among military personnels as examples which is situated at central part of the continuum. So this paper asserts that we should consider style as well as media in order to explain the feature of general texts. Because the style continuum has degreeen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oral style texts and literal style texts is not very clear.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that natural language, sum of two kinds of text, contains.

I. 머리말

본 연구는 입말(spoken language) 또는 글말(written language)로 이루어진 다양한 텍스트들이 그 스타일(style)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연속체(continuum)를 이루고 있음을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인간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호 체계라 할 수 있는 언어는 보통 입말과 글말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입말은 구두·청각적인 음성 기호로 이루어진 언어이고, 글말은 입말이 시각적인 문자로 재현된 언어라 할 수 있다. 이 둘 중에서 글말은 입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중 있는 권위와 힘을 갖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언어학, 특히 규범적 특성을 지닌 전통 문법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반해 입말은 글말에 비해 규칙성이나 영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통 문법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글말은 본질적으로 입말을 재현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바로 입말이라는 논의와 함께, 입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언어학은 그 연구 대상으로 글말 뿐 아니라 입말 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화 분석은 언어학에서의 주요 관심사를 단지 글말이 아닌, 글말이나 입말로 이루어진 모든 텍스트로 전환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양한 텍스트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출발점은 자연적으로 ‘입말 대 글말’이라는 기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입말과 글말 사이의 차이는 일반 텍스트들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국어의 경우, 이와 같이 입말과 글말의 특성을 서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 노대규(1996)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입말과 글말의 일반적 특성을 ‘다양성 대 단순성’, ‘즉각성 대 계획성’, ‘친교성 대 제보성’, ‘표현성 대 서술성’, ‘포함성 대 분리성’, ‘구체성 대 추상성’, ‘순간성 대 영구성’, ‘동태성 대 정태성’, ‘모호성 대 명시성’, ‘비논리성 대 논리성’, ‘비격식성 대 격식성’ 그리고 ‘상황의존성 대 문맥의존성’의 1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특성 구분이 모두 같은 층위의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간략히 예를 들면, ‘순간성 대 영속성’은 입말과 글말 자체의 어떠한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고, ‘즉각성 대 계획성’은 입말 텍스트와 글말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 차이에 관한 설명이며, ‘비격식성 대 격식성’은 이른바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의 특성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이들은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인 것이다.

또한 Tannen, D.(ed.)(1982)에서 Chafe는 ‘포함성 대 분리성’, ‘분열성 대 통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입말과 글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노대규(1996)에서 언급되었던 ‘포함성 대 분리성’을 제외한

‘분열성 대 통합성’도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의 특성 차이에 관한 설명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의 II장에서는, 첫째 의사소통 매체(media)로서의 ‘입말/글말’ 자체의 특성 차이, 둘째 ‘입말/글말 텍스트’ 각각의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 차이, 셋째 이 각각의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일반적 문체라 할 수 있는 ‘입말 스타일/글말 스타일’의 특성 차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입말 대 글말’과 ‘입말 스타일 대 글말 스타일’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전자의 구분은 매체의 특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만, 후자의 구분은 이와 달리 정도성을 띠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입말/글말 텍스트의 ‘스타일 연속체’를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III장에서 몇 가지의 텍스트를 사례로 제시하며 설명하도록 하겠다

II. 입말/글말 구분과 관련된 논의

1.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입말과 글말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입말과 글말 자체가 갖는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순간성 대 영구성’이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입말은 말하는 이의 입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물리적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입말은 글말로 기록되거나 녹음되지 않는 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존되거나 전달될 수 없다. 반면에 글말은 글

1) II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대규(1996)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들을 참고하면서 Tannen, D (ed.)(1982)에서 Chafe가 제시한 ‘분열성 대 통합성’을 포함하여, 모두 9가지의 특성들을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층위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쓰는 이가 문자를 이용하여 기록하여 놓은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존되거나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글말은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입말 텍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위와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다양성 대 단순성’이다. 정보전달의 매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입말은 그 본질이 소리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언어음(speech sound) 외에도, 어조(intonation), 강세(stress), 음장(length), 운율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표현 행위인 얼굴 표정, 신체 동작 등이 의미전달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반면에 글말의 경우는 단지 시각적 기호인 문자와 문장 부호만이 정보전달의 매체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셋째는 ‘동태성(動態性) 대 정태성(靜態性)’이다. 언어 변화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입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과는 관계없이 생성되므로,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글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가 입말에 비해 매우 느리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글말은 입말의 경우와는 달리 주로 표준어가 사용되며, 글쓰기에 있어서도 개인들 간의 차이가 말하기에 비해 덜 나타난다.

2. 입말/글말 텍스트 생산과정에서의 구조적 특성

II. 1장에서 언급한 입말과 글말 자체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이 두 가지 말로 이루어지는 입말 텍스트와 글말 텍스트는 서로 다른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즉각성 대 계획성’이다. 입말 텍스트는 비록 회답이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글말 텍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일상 잡담은 매 순간 변화하는 화제의 흐름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입말에 의한 의사소통은 그 참여자들 간에 벌어지는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대결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글말 텍스트는 다분히 계획적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신문지상에 자신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게재할 경우에, 이들은 그 글의 목적, 논의 전개 방향, 참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생각한 후 글을 쓰기 시작한다.²⁾ 또한 글쓰기를 마친 후에라도 그 글의 내용과 형식을 수정 보완하는 등,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계획적인 작업을 행하게 된다.

둘째는 ‘포함성(involverment) 대 분리성(detachment)’이다. 말할이와 들을이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입말 텍스트에서는 말할이와 들을이가 의사소통 상황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함께 포함되어 접촉하고 있다. 물론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비록 그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같은 의사소통 상황에 포함되어 있게 된다. 반면에 글말 텍스트에서는 일반적으로 글쓴이와 읽는이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즉 글쓴이는 읽는이와 분리된 상황에서 글을 쓰고, 읽는이는 그것을 글쓴이와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글쓴이 자신은 읽는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는 ‘상황의존성 대 문맥의존성’이다. 입말 텍스트는 대부분이 참여자들의 면대면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주변의 여건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반면에 글말 텍스트는 글쓴이와 읽는이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분

2) 이런 글말 대화의 한 보기로, ‘영어 공용어화’ 문제와 관련하여 복거일님과 남영신님이 한 일간지에서 벌인 논쟁을 들 수 있다. 당시 복거일님의 저서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에 대하여 남영신님이 ‘세계화를 위해 민족 버리자고’(1998.7.8)라는 제목의 글을 신문에 발표하였으며, 다시 이에 대해 복거일님은 ‘열린 민족주의를 찾아서’(1998.7.10)라는 글을 같은 신문에 발표한 바 있다.

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대방의 글에 대해 답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이 쓴 글의 문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입말 텍스트는 즉각적이고 포함적이면서 상황의존적인 특성을 갖는데 반해, 글말 텍스트는 계획적이고 분리적이면서 문맥의존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3.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입말과 글말 자체의 특성, 그리고 그 입말/글말로 이루어지는 텍스트들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각의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의 일반적 스타일(style)인 ‘입말체/글말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비격식성 대 격식성’이다. 보통 입말의 스타일은 비격식적이기도 하고 격식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격식체의 입말이 쓰이고, 방송의 뉴스나 공식 회의 같은 경우에는 격식체의 입말이 쓰인다. 하지만 일상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입말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입말의 스타일은 비격식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글말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편지나 일기 등에서는 비격식적 스타일의 글말이, 전문적인 학술 서적이거나 공문서 등에서는 격식적 스타일의 글말이 쓰인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사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글말들은 비격식적이라기보다는 격식적 스타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모호성 대 명시성’이다. 이것은 입말과 글말 텍스트에서의 구조적 특성인 ‘즉시성 대 계획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입말과 글말을 통한 표현에 있어서의 시간적 여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입말은 글말에 비해 간접적 표현, 함축적 표현, 비문법적 표현, 그리고 생략된 표현과 같은 의미 해석상 모호한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된다. 또한 부가어(expletive)나 반복적 표현과 같은 잉

여적 표현도 빈번히 사용된다. 하지만 글말은 비교적 명시적이고 문법적인 표현이 주로 사용되며 잉여적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말의 스타일은 모호성을, 글말의 스타일은 명시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열성(fragmentation) 대 통합성(integration)’이다. 보통 입말은 생각 단위(idea unit)³⁾들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단위들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부가어들이 위치하게 된다. 이 부가어는 말할이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들을이에 대한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비격식적 단어인 덧말을 가리키는 것인데, 개인적인 언어 습관과 관계가 있으며 주로 단어나 어절 또는 문장의 뒤에서 사용된다.⁴⁾ 이와 달리 글말은 통합성을 띠는데, 이 통합성이란 하나의 생각 단위 내에 입말의 경우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문법적으로 채워 넣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된 언어에서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원래 동사적인 개념을 마치 명사인 것처럼 하나의 생각 단위 안에 끼워 넣게 해주는 명사화 그리고 접속구, 관계절 등의 것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입말/글말 스타일 각각의 특성들은 명확하게 이분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상대적인 정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서 일종의 연속체(continuum)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의 연속체의 모

3) 생각 단위는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비록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실제의 자연스런 발화에서 사용되는 어휘 요소들은 몇 개의 단계(stage)로 구성되는 것인데, 이 때의 각각의 단계가 하나의 생각 단위이다. 보통의 생각 단위는 하나의 서술어가 주어, 목적어 등의 요소와 직접적으로 결합된 명사구 또는 절 등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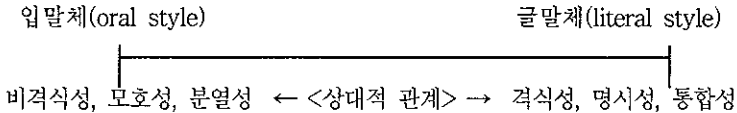
4) 부가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이, ‘-요, -말이야, -있지’ 등이 있다

(예) “제가요, 어제요, 친구하고요, 영화를요, 보았는데요.”, “이것은말이야, 국산품인데말이야, 질이말이야, 아주 좋단말이야” “어제있지, 영이가있지, 순이하고있지, 싸웠는데있지”

5) 결국 여기에서의 특징들은 모두 상대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한 예로, 보

습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입말/글말 스타일 연속체(Style Continuum)



이와 같이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인 특성들로 이루어진 연속체이어서, 실제로 발화되거나 쓰여진 모든 입말/글말 텍스트들은 위 연속선상의 일정 위치를 차지하는 스타일을 보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실제 텍스트들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의 III장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입말/글말 텍스트 스타일 연속체(Style Continuum)

일반적으로 모국어 학습자들은 주로 가족과 같은 내집단(ingroup) 안에서 입말 언어를 학습하게 되고, 학교라는 탈맥락화된 환경에서 글말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한 개인이 실제 언어생활 중에 사용하는 언어는, 그것이 입말인지 혹은 글말인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의 특성을 함께 보인다. 단지 개인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떠한 스타일의 말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그 스타일의 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뿐이다.

따라서 모든 입말/글말 텍스트는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 중 어느 하나만의 특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두 가지의 특

통 사람의 글말체보다 더욱 더 격식적이고, 명시적이며, 통합적인 입말체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런 상대성으로 인하여 ‘입말체/글말체 연속체’가 형성 된다.

모든 텍스트들은 그 매체가 입말이나 글말이나에 따라 입말 텍스트와 글말 텍스트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입말 텍스트는 사용되는 그 언어들의 스타일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시 입말체 입말 텍스트와 글말체 입말 텍스트로 나누어지며, 글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입말체 글말 텍스트와 글말체 글말 텍스트로 나누어진다고 그 결과 양극단에 입말체 입말텍스트(oral-style spoken text)와 글말체 글말텍스트(literary-style written text)가 위치하는, ‘입말/글말 텍스트 스타일 연속체’가 형성된다. 이러한 양극단의 텍스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로, 우리는 ‘일상 잡담’과 ‘논문’ 같은 텍스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텍스트들조차도, 상대 스타일의 텍스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체의 양극단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입말 스타일의 입말텍스트와 글말 스타일의 글말텍스트는 연속체 선상에서 양극단의 무한대 지점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상적인 개념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2>의 연속체 중앙부를 보면, 글말 스타일 입말텍스트와 입말 스타일 글말텍스트가 연속체상에서 서로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연속체가 매체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스타일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절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텍스트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연속체 중앙부의 모습

일상 잡담이나 논문과 같이, 일반적으로 연속체의 양극단 가까운 지점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되는 텍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간자적 텍스트들(in-between texts)은 우리가 보통 입말텍스트나 글말텍스트나를 구분할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다. 그 이유는 일상 잡담이나 논문과 같은 텍스트들은 각각 입말 매체와 입말 스타일 그리고 글말 매체와 글말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에, 중간자적 텍스트들은 글말 매체와

입말 스타일 혹은 입말 매체와 글말 스타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트들 중 전자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채팅, 후자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군인들의 대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1) 채팅(chatting) 대화

채팅은 의사소통 방법에 있어서 소리 대신 문자를 매체로 하고 있지만, 그 의사소통 구조의 특성은 입말 의사소통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된 언어의 스타일 역시 입말체에 가깝다. 따라서 채팅 언어는 입말/글말 텍스트 스타일 연속체의 선상에서 볼 때, 입말 스타일 텍스트 쪽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채팅 자료에서 뽑아온 다음의 <대화 사례 1>을 보도록 하자

< 대화 사례 1 >

- (1) 사탕 그날 오시는 분?
- (2) 수수 글세 토요일이라 잘 모르겠어요
- (3) 사탕 저도 약속이 있느데
- (4) 사탕 째~~~~
- (5) 해성 난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해요
- (6) 사탕 하필
- (7) 사탕 전 가면 아주 늦게 갈거 같아여
- (8) 사탕 아주 늦게
- (9) 수수 네에...
- (10) 해성 아주 이른 시간만 이니면
- (11) 사탕 냥
- (12) 해성 몇시쯤 잡는데요
- (13) 수수 푸코님,
- (14) 사탕 전 오후 3시쯤 마나요 친구들
- (15) 푸코 예?
- (16) 사탕 영화보고

- (17) 사탕 밥먹고
- (18) 사탕 하면 저녁 늦어서
- (19) 사탕 갈거 같아여
- (20) 사탕 ^
- (21) 수수 아유 왜 놀라세요. 미안하게
- (22) 푸코 놀란거 아네요
- (23) 해성 한 7 시는 안 넘머 갈거 잤아요
- (24) 수수 푸코님은 제가 처음 뵈는거 같아서요
- (25) 푸코 오늘 처음이에요.
- (26) 수수 전 서울 주부입니다
- (27) 수수 아. 그러시군요

【 부분 생략 】

- (28) 두리 왜 그렇게 구박을 했어여 해성님
- (29) 해성 제가 열심히 인사를 했는데
- (30) 해성 아무 말습이 없잔아요
- (31) 두리 <<<<<<<<<<<<<<<<<[[=====0 칼받아요 해성님...
- (32) 해성 옥 왜 남의 옆구리를 찔려요
- (33) 수수 지금 칼 씹 하는 건가요?
- (34) 해성 따갑게
- (35) 두리 왜 남을 못살게 굴어여 해성님 .
- (36) 해성 아이구
- (37) 두리 지기님이 얼마나 존 분이신데 히히
- (38) 해성 때만 밀런내
- (39) 두리 하하하하

위의 <대화 사례 1>은 ‘유희한 문제 해결의 자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 대화방에서의 대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대화 참여자들은 모두 30대이며, 이 대화방에 처음 들어온 푸코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이다.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채팅에서의 의사소통은 매우 즉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통의 글말 의사소통이 가질 수 없

는 특성으로, 채팅이 글말 매체를 이용해야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는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채팅은 비록 청자와 화자의 관계가 아니라 ‘화면을 보는 이(screen watcher)’와 ‘자판을 치는 이(keyboard hitter)’ 사이의 의사소통이지만, 그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한 분리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즉 이들은 어떤 가상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면서 면대면(face to face)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위의 <대화 사례 1>을 보면, (13)에서 수수가 푸코를 부르고 있다. 이 대화방에 처음 들어온 푸코는 아직 이 대화방의 분위기나 참여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화방에 입장할 당시에 서로 가벼운 인사만 나누었을 뿐, 그 후로는 (12)까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가 푸코에게 관심을 보이려 호출을 하게 된 것이고, 푸코는 (15)에서와 같이 간단하게 ‘예?’라 응답을 하였다 그런데 수수는 자신의 호출에 푸코가 놀랐다고 생각하며, (21)과 같이 ‘아유 왜 놀라세요. 미안하게’라 말하고 있다. 이 채팅에서는 소리나 얼굴 표정을 나타내 주는 장치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가 자신의 호출에 푸코가 놀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비록 자신과 푸코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면대면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수는 가상 공간에서 푸코를 만나 상대와 마주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화 사례 1>의 후반부 (31)~(38)을 보면 이러한 예를 더 확인할 수 있다. (31)에서 두리는 해성이 지기에게 구박한 것을 탓하기 위해, 칼 모양의 그림을 타이핑하면서 해성에게 칼을 받으라 한다.⁶⁾ 이에 해성은 (32), (34), (36), (38)에서 ‘옥 왜 남의 옆구리를 찔려요’, ‘따갑게’,

6) 이런 그림 외에도 채팅에서는 이른바 emoticon(emotion+icon)이라는 것이 있어, 말하는 이의 기쁨이나 슬픔, 화냄이나 놀람의 표정을 기호로 나타내기도 한다

‘아이구’, ‘때만 밀런내’라 응답하고 있다 앞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리와 해성도 비록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들은 상상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만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들을 통해 볼 때, 채팅에서의 의사소통은 그 참여자들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서로 분리된 공간에 위치하여 글말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지만,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입말 의사소통 못지않게 포함성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사용된 언어들의 스타일을 보면, 채팅은 글말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던 격식성, 명시성, 통합성 보다는 입말의 일반적 특성인 비격식성, 모호성, 분열성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37)의 ‘지기님이 얼마나 존 분이신데...히히’와 같은 말줄임 현상, (38)의 ‘때만 밀런내’와 같은 소리나는대로 적기, 그리고 (4)의 ‘쩍~~~’과 같은 감정 표기 등의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⁷⁾

이처럼 장소의 문제와 관계 없이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입말 스타일의 글말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것은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전 덕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채팅을 할 수도 있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다. 일상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방법의 개발은 채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때부터 절실히 요구되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채팅말로 이루어진 텍스트는 그것이 원래 ‘입말/글말 텍스트 스타일 연속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점으로부터, ‘입말 스타일 입말텍스트’의 이상적 지점이 있는 방

7)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맞춤법에 따라 글자판을 두드리는 수고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여, 글자를 통한 대화라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또는 입말과 같은 맛을 살려서 상대방에게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주제의 성격상, 그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채팅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향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었다 할 수 있겠다

2) 군인 대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입말은 스타일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입말이 보통의 글말 스타일에 가까운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바로 이런 경우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이들로 군인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당화되는 행위규범의 특성상,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격식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요구되어진다. 그 결과 그들의 입말은 보통의 민간인들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글말 스타일의 특성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군인들의 대화는 비록 입말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채팅 텍스트보다 글말 스타일의 특성을 더 많이 보이며, <그림 1>의 연속체 선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오른 쪽의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다음의 <대화 사례 2>를 보도록 하자.

< 대화 사례 2-1 >

참여자 김○○중사(30세), 임○○하사(22세)

장 소 예식감판

배 경 · 김중사가 임하사에게 예식감판의 스프레이 작업을 빨리 마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대해 임하사가 대답하는 상황

김○○중사 · 저거 오늘 해지기 전까지 하고 결과보고 해. 알았어?

임○○하사 · 그거 지금 안 해 줄 건데 말입니다.

< 대화 사례 2-2 >

참여자 · 강○○대위(32세), 김○○하사(22세)

장 소 · 전투정보실

배 경 강대위가 자신의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김하사에게 제1선임하사(중사)를 불러오도록 명령하고
이어서 김하사가 대답하는 상황

강○○대위 가서 넘버원 오라고 해

김○○하사 · 전화하러 왔는데 말입니다.

< 대화 사례 2-3 >

참여자 김○○중사, 김○○상병

장 소 함교

배 경 김중사가 함교 청소를 하고 있는 김상병에게 어떤 지점을 가리키며 그 곳도 닦으라고 하자, 김상병이 다가와 어디를 닦으라는 것인지 물어보는 상황

김○○중사 ((유리창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야. 여기
도 좀 닦아라.

김○○상병 ((하던 일을 마치고 다가오며)) 어디가 더러운데 말입니까?

위의 세 가지 대화 사례들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구문은 모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써, 만약 민간인들의 대화에서라면 비격식의 해요체 종결어미인 ‘-요’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⁸⁾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대는 그

8) 물론 ‘그거 지금 안 해줄겁니다’와 같은 격식의 합쇼체가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계급의 고하(高下)와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군대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명령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단지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거나 상급자의 판단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결정적 판단을 내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전형적인 합쇼체의 문장을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박용한(2000) 참조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격식의 해요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구성원들은 군인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난이나 일종의 제재를 가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의 해결책으로써 ‘-말입니다’라는 독특한 형식의 높임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쓰임은 일단, 스타일의 측면에서는 격식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기 때문에 비격식체의 사용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비난이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을 진술함으로써 상급자의 명령권이나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즉 대화 상대의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의 말은 민간인들의 말과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비록 종결어미의 격식/비격식성과 관련하여서만 언급하였지만, 바로 그 무언가에 해당되는 것은 어조, 어휘, 문장 구조 등의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는 격식성, 명시성 그리고 통합성의 정도, 즉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군인들 간의 대화로 구성되는 입말 텍스트는 비록 입말 매체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글말 스타일의 특성을 보이는 글말 스타일 입말텍스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입말/글말 텍스트 스타일 연속체’의 중앙부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사용 매체가 무엇인가와는 상관없이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정도성에 따라 연속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즉 채팅 대화와 군인 대화로 이루어진 각각의 텍스트들을 연속체상의 상대적인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는 비록 글말이지만 입말 스타일 입말텍스트 쪽에, 후자는 비록 입말이지만 글말 스타일 글말텍스트 쪽에 더욱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IV. 맺음말

Tannen, D.(ed.)(1982)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각각 쓰고 말한 두 개의 텍스트에 대하여 정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글말 텍스트에는 글말 스타일의 특성뿐만 아니라 입말 스타일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글쓰기란 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창조적 효과를 자아내기 위해서는 작가와 독자 그리고 캐릭터들 사이의 일체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말 스타일의 특성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장르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살펴보았던 ‘입말/글말 텍스트 스타일 연속체’의 개념 그리고 Tannen, D(ed)(1982)에서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어느 누구도 순수하게 입말 스타일만을 사용하거나 글말 스타일만을 사용하는 이는 없으며, 모든 텍스트는 그 정도성에 있어서만 조금씩 다를 뿐 항상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입말 스타일과 글말 스타일 또는 입말 스타일 텍스트와 글말 스타일 텍스트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텍스트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방법론상으로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텍스트들의 본질을 연구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입말 스타일 텍스트와 글말 스타일 텍스트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 보다 훨씬 더 불분명한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둘 사이의 연속체적인 속성은, 그 두 가지 텍스트들의 합이라 할 수 있는, 자연 언어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주제어 : 입말(spoken language), 글말(written language),
 텍스트(text), 스타일(style), 연속체(continuum),
 의사소통(communication)

참고문헌

- 강범모 외,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 문체, 유형』, 태학사, 2000.
- 김병원, 「한국말과 글의 특성 비교」, 『이중언어학』3, 이중언어학회, 1987.
- 김종택, 『국어화용론』, 형설출판사, 1984.
- 노대규,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1996.
- 박용한, 「군대 영내거주자 집단의 '-말입니다' 사용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8-2, 사회언어학회, 2000.
- 백설자 역, 『텍스트언어학 입문』, 역락, 2001.
- 이원표,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2001.
- 이진성, 「약자, 약어 및 통신어에 대한 고찰」, 『사회언어학』7-2, 사회언어학회, 1999.
- 한 길,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1.
- Tannen, D.(ed.). *Spoken and Written Language*, Norwood, New Jersey : Ablex, 1982.
- Tannen, D. Oral and literal strategies in spoken and written narratives", *Language* 58-1, 1982.

이 논문은 2004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11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
에서 게재·결정된 것임